

해외박사들의 특징과 진로 실태 - 미국박사를 중심으로

송창용* · 진미석**

*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· 통계센터 소장

**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

해외박사들의 특징과 진로 실태 - 미국박사를 중심으로

《요 약》

-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급인적자원의 확보는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사안임.
- 이에 우리나라 고급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e-HRD Review의 12-16호에서는 국내 박사학위취득자의 특징 및 학위취득 이후 초기 진로활동을 분석하여 인적자원정책에 주는 함의와 아울러 향후 박사인력에 관한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.
-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12-17호에서는 해외 박사학위취득자의 특징과 진로 실태를 미국 박사학위취득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, 해외 고급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 - 미국의 과학재단(National Science Foundation: NSF)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박사학위취득자 조사(Survey of Earned Doctors; SED) 가운데 한국인 박사학위취득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특징과 진로 실태를 분석하고 고급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과 고급인력의 두뇌유출 현상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해외박사들의 특징과 진로 실태 - 미국박사를 중심으로

I. 서론

- ▣ 고급 핵심인재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, 핵심인재의 양성과 활용은 국가 인재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.

 - 우리나라의 고급 핵심인재의 양성은 전통적으로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져 왔음.
 - 이들 해외 박사인력들이 귀국하여 국내의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교육이나 연구개발에 종사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음.
- ▣ 최근 해외 박사들이 해외 잔류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귀국한 박사들도 해외에 재진출 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두뇌유출과 국가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.

 -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고급 핵심인재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과 삶의 질을 좇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어,
 - 종전과 같이 해외에서 양성된 고급 핵심인재를 애국심에 호소하여 국내에 귀국할 것을 기대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음.
- ▣ 본고에서는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(SED)를 활용하여 한국인 미국박사의 특징과 진로 실태에 관해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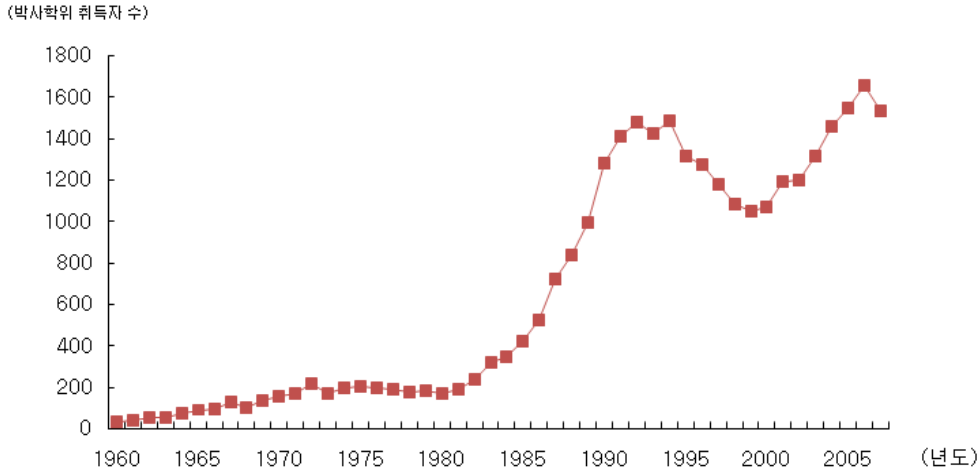
미국 SED(Survey of Earned Doctorate) 자료

- SED는 미국 국립과학재단(NSF)에서 1920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는 박사학위자(전문분야의 의학박사나 법학박사 제외)에 대한 조사임.
- 이 조사는 개인 대상 조사로 각 대학원의 협조 아래 당해년도 6월 기준 1년간 학위를 받는 모든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.
- 조사결과는 'Doctorate Recipients from United States Universities; Summary Report'라는 보고서에 제시되고 있음.
- 조사대상 항목은 학위취득 학교, 학사학위 국가, 국적, 출생지, 출생년도, 장애 유무, 부모의 교육수준, 학력 배경, 학위취득 분야(287개), 취업분야, 과학 및 공학분야, 전공분야, 학위수준, 결혼여부, 부양가족 수, 출생지역(미국 내), 포스트닥 계획, 졸업 후 계획, 재정지원의 일차 유형, 인종별, 성별, 학위취득 학교의 유형, 취업계획, 재정지원 유형, 학위기관 유형, 직업 활동 계획 등임.
- SED는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원이며, 이를 통해 한국국적을 가진 박사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.

II.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의 현황과 특성

▣ 미국 박사학위 수여자(한국인) 규모

- 최근 매년 1500명 정도의 한국인 미국박사를 배출하고 있음.
 - 미국 대학의 한국인 박사학위취득자 수는 1964년부터 1980년까지 미미한 증감을 나타내며 변동을 거듭하다가, 이후 10년간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냄.
 - 2007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미국 대학의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취득자 수는 1,529명임.
 - 2006년 1,65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소폭 감소하고 있음.



[그림 1]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 수(1960-2007)

<표 1> 한국의 미국박사학위 취득자 (단위: 명)

| 년도 | 1960 | 1970 | 1980 | 1990 | 2000 | 2005 | 2007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박사 취득자 수 | 28 | 151 | 167 | 1,274 | 1,064 | 1,542 | 1,529 |

- 1997년 외환위기 기간 전후의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 수의 급속한 감소가 특이한 사항임.
 - 박사학위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이 기간 중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 수의 감소는 박사학위 신입생 수의 감소보다는 학위 과정생들이 졸업을 늦추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.

- 2007년 미국 내 외국인 박사 가운데 한국박사는 중국, 인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음.
 - 한국인 박사는 미국 전체 박사학위자(48079명)의 3.2%, 외국인 박사자(16,812명)의 9.1%를 차지하고 있음.
 - 총인구 10억을 상회하고 매년 대학 졸업자가 각각 6백만 명, 5천여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이나 인도의 미국 박사학위자가 각각 5천여 명, 2천여 명임을 고려할 때 미국 내 한국인 박사의 배출은 그 규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.

〈표 2〉 미국 내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순위

(단위: 명)

| 순위 | 국가 | 박사배출 수 |
|----|-----|--------|
| 1 | 중국 | 5,002 |
| 2 | 인도 | 2,228 |
| 3 | 한국 | 1,529 |
| 4 | 타이완 | 755 |
| 5 | 캐나다 | 629 |
| 6 | 터키 | 559 |
| 7 | 일본 | 330 |

▣ 전공분야별 박사학위

- 2007년도 현재, 가장 많은 수의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를 배출한 전공분야는 공학 분야로 총 512명(33.5%)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, 이 외에 자연과학 분야 253명(16.5%), 생명과학 분야 241명(15.8%), 사회과학 분야 167명(10.9%), 기타 분야 150명, 인문학 분야 114명(7.5%), 교육학 분야 92명(6.5%)으로 나타남.
- 전체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취득자의 약 66%(1,006명)가 이공계(자연과학, 공학, 생명과학)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있음.

〈표 3〉 전공분야별 미국박사학위 취득자

(단위: 명, %)

| 전공 | | 교육학 | 인문학 | 사회과학 | 생명과학 | 자연과학 | 공학 | 기타 | 총계 |
|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한국인 | 수 | 92 | 114 | 167 | 241 | 253 | 512 | 150 | 1,529 |
| | 비율 | 6.0 | 7.5 | 10.9 | 15.8 | 16.5 | 33.5 | 9.8 | 100 |
| 미국 전체 | 수 | 6,429 | 5,109 | 7,191 | 10,630 | 8,037 | 7,745 | 2,938 | 48,079 |
| | 비율 | 13.4 | 10.6 | 15.0 | 22.1 | 16.7 | 16.1 | 6.1 | 100 |

- 반면 2007년 미국 전체 박사의 경우, 가장 많은 수의 박사학위취득자를 배출한 전공분야는 생명공학 분야로 총 10,630명(22.1%)이 박사학위를 받음.
- 이 외에 공학 분야가 7,745명, 교육학 분야가 6,429명, 인문학 분야가 5,109명, 기타 분야가 2,938명, 사회과학 분야는 7,191명, 자연과학 분야가 8,037명으로 나타남.
- 미국 전체 박사학위취득자의 약 55%가 이공계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미국박사학위 취득자와 비교할 때 한국인 미국박사의 이공계 비율이 높음.

※ 2007년도에 가장 많은 수의 한국인 미국박사학위를 배출한 대학은 U. of Illinois at Urbana-Champaign 으로 69명, Texas A&M U. 64명, Perdue U. 50명, U. of Wisconsin-Madison 4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.

※ 전공별로 자연과학(Perdue U., 12명), 생명과학(U. of Wisconsin-Madison, 11명), 사회과학(U. of Illinois at Urbana-Champaign, 12명), 공학(GA Institute of Technology, 37명), 인문학(U. North TX, 7명), 교육학(Teachers' College at Columbia University, 10명)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한국인 박사학위취득자를 배출하고 있음

※ SED가 분류한 박사학위의 세부 전공분야는 모두 279개이며 대분야로는 자연과학, 공학, 생명과학, 사회과학(심리학 포함), 인문학, 교육학, 기타(경영, 커뮤니케이션, 사회사업, 신학 등 포함) 분야로 7개로 나누고 있음.

▣ 성별 박사학위 취득자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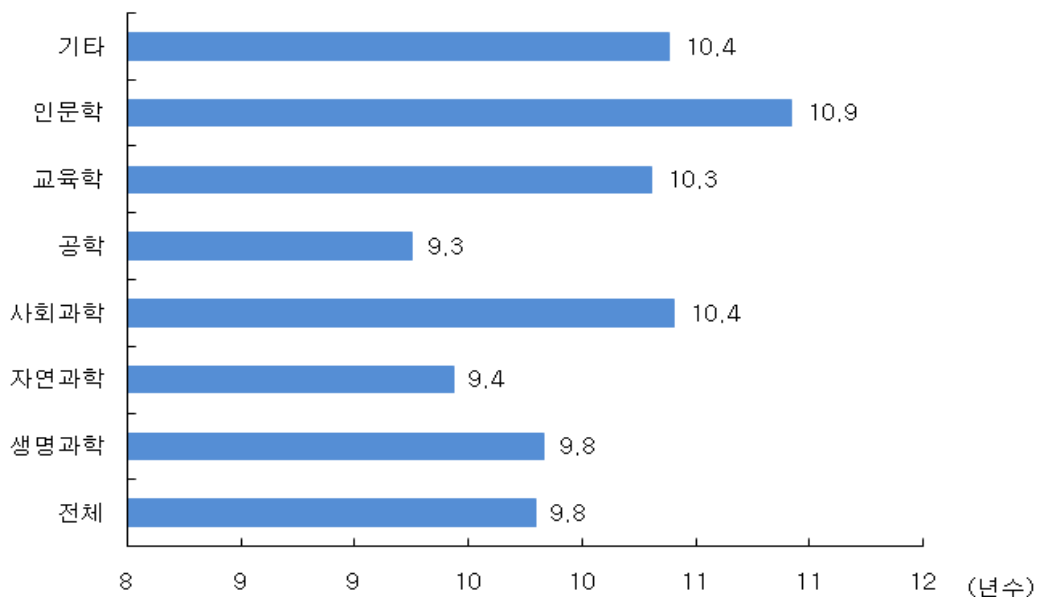
- 한국인 박사학위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은 30.0%(2007년)로 나타났으며, 이는 2002년의 27.1%, 1997년의 18.9%, 1992년의 15%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나,
- 미국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중 45.2%가 여성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여성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률은 남성과 비교할 때 아직 저조한 수준임.

▣ 학위취득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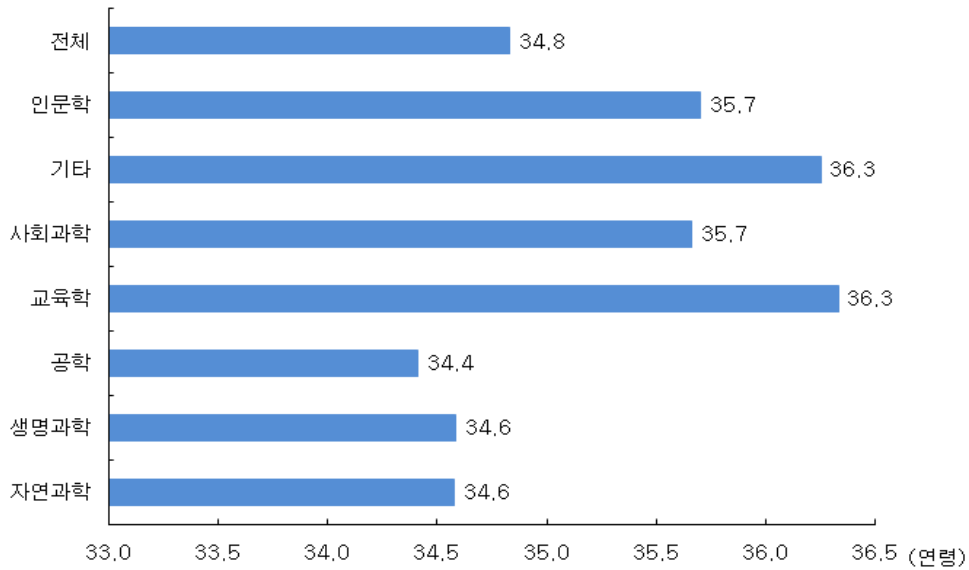
- 대학졸업이후 박사학위취득까지는 11.4년, 대학원 입학이후 박사학위취득까지는 9.8년, 연령은 34.8세로 나타나, 미국 전체의 박사, 10.0년, 8.0년, 33.3세에 비해 다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대체적으로 군복무의 기간 및 유학준비 기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.

- 대학원 입학 이후 박사학위취득까지 걸리는 평균년수는 9.8년
 -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입학 이후 박사학위취득까지 걸리는 평균년수는 공학 분야가 9.3년으로 가장 짧았으며, 인문학 분야가 10.9년으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.

-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들의 연령의 중앙값은 34.8세임.
 -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학/생명과학/자연과학 전공자가 인문학 전공자에 비해 2세 정도 적은 나이에 학위를 수여받는 것으로 나타남.
 - 또한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인 남성 박사학위취득자들의 중앙값이 35.2세, 한국인 여성 박사학위취득자들의 중앙값이 33.7세로 여성들이 1.5세 정도 적은 나이에 학위를 수여 받고 있어, 한국의 군복무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.
 - 여성들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교육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, 남녀 나이 차가 군복무기간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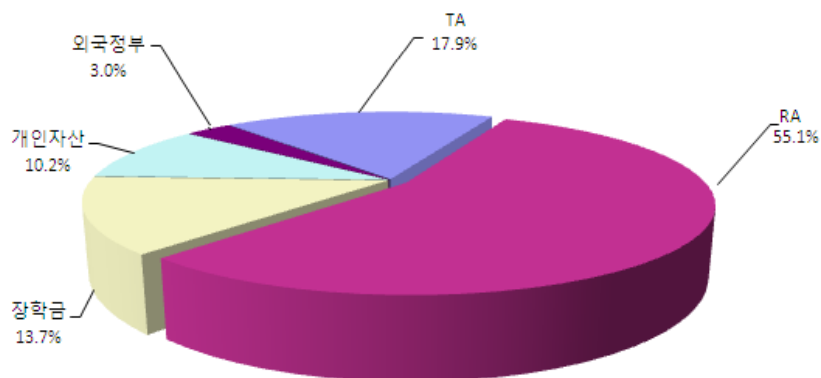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대학원 입학이후 박사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평균년수:
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(2007년)의 경우



[그림 3] 전공 분야별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 연령의 중앙값(2007년)

▣ 자원

- 2007년도 한국인 박사학위취득자들의 대학원 학기 동안에 필요한 교육비 재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RA(research assistantships)라고 응답한 사람이 55.1%로 가장 높았으며, TA(teaching assistantships)가 17.9%, 개인 자산이 10.2%, 장학금이 13.7%, 외국 정부가 3.0% 순으로 나타남.



[그림 4]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의 교육비 자원 (2007년)

- 교육비 재원은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자연과학 분야 한국인 박사 학위취득자들의 일차적 재원은 RA, TA 및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(73.0%)이 타 분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음.
 - 공학 분야는 RA, TA 및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3.7%로 나타났으며, 생명과학 분야는 71.9%, 사회과학 분야는 72.5%, 인문학 분야는 56.7%, 교육학 분야는 57.0%, 기타 분야는 58.9%로 나타남.
 - 성별에 따른 일차적 재원은 RA의 경우 남성(59.2%)이 여성(43.7%)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, 이는 성별 전공 분야의 차이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〈표 4〉 전공 분야별 및 성별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의 자원 (2007년)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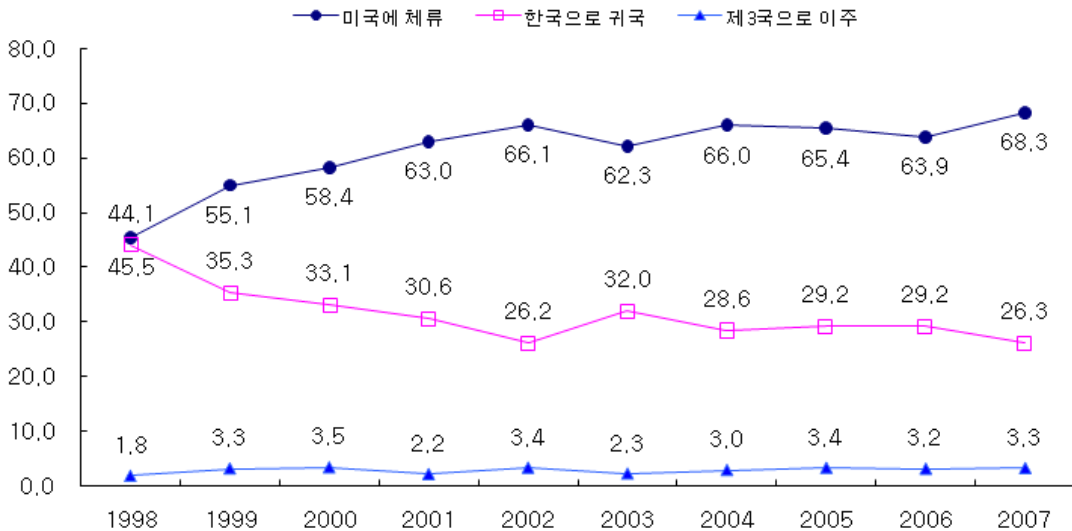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성별 | n | TA | RA | 장학금 | 개인자산 | 외국정부 | 취업, 아르바이트 | 기타 |
|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전체 | 남 | 991 | 15.5 | 59.2 | 12.1 | 8.5 | 3.6 | D | D |
| | 여 | 410 | 23.4 | 43.7 | 17.1 | 13.9 | 1.5 | D | D |
| | 계 | 1401 | 17.8 | 54.7 | 13.6 | 10.1 | 3.0 | D | D |
| 자연과학 | 남 | 171 | 26.3 | 59.6 | D | D | D | D | D |
| | 여 | 60 | 40.0 | 51.7 | D | D | D | D | D |
| | 계 | 231 | 29.9 | 57.6 | 9.5 | D | D | D | D |
| 공학 | 남 | 448 | D | 78.3 | D | D | D | D | D |
| | 여 | 39 | D | 82.1 | D | D | D | D | D |
| | 계 | 487 | 5.1 | 78.6 | 6.8 | 6.0 | 2.5 | D | D |
| 생명과학 | 남 | 131 | D | 64.1 | 24.4 | D | D | D | D |
| | 여 | 89 | D | 67.4 | 19.1 | D | D | D | D |
| | 계 | 220 | 6.4 | 65.5 | 22.3 | D | D | D | D |
| 사회과학 | 남 | 103 | 38.8 | 16.5 | 20.4 | 14.6 | D | D | D |
| | 여 | 52 | 30.8 | 28.8 | 21.2 | 11.5 | D | D | D |
| | 계 | 155 | 36.1 | 20.6 | 20.6 | 13.5 | 6.5 | D | D |
| 인문학 | 남 | 38 | 28.9 | D | 23.7 | 28.9 | D | D | D |
| | 여 | 57 | 29.8 | D | 29.8 | 29.8 | D | D | D |
| | 계 | 95 | 29.5 | 8.4 | 27.4 | 29.5 | 5.3 | D | D |
| 교육학 | 남 | 24 | 29.2 | D | D | 20.8 | D | D | D |
| | 여 | 55 | 25.5 | D | D | 34.5 | D | D | D |
| | 계 | 79 | 26.6 | 30.4 | 8.9 | 30.4 | D | D | D |
| 기타 | 남 | 76 | 28.9 | 28.9 | 11.8 | 22.4 | D | D | D |
| | 여 | 58 | 25.9 | 34.5 | 20.7 | 17.2 | D | D | D |
| | 계 | 134 | 27.6 | 31.3 | 15.7 | 20.1 | 4.5 | D | D |

자료: 셀 당 사례수가 5이하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치를 공개하지 않음.

Ⅲ. 박사 취득 후 진로 실태²⁾

▣ 미국 체류 계획과 미국 내 취업 분야

- 미국 체류 의사를 나타내는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 이러한 미국 체류 증가는 과거에 비해 어려운 국내 취업 현실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분석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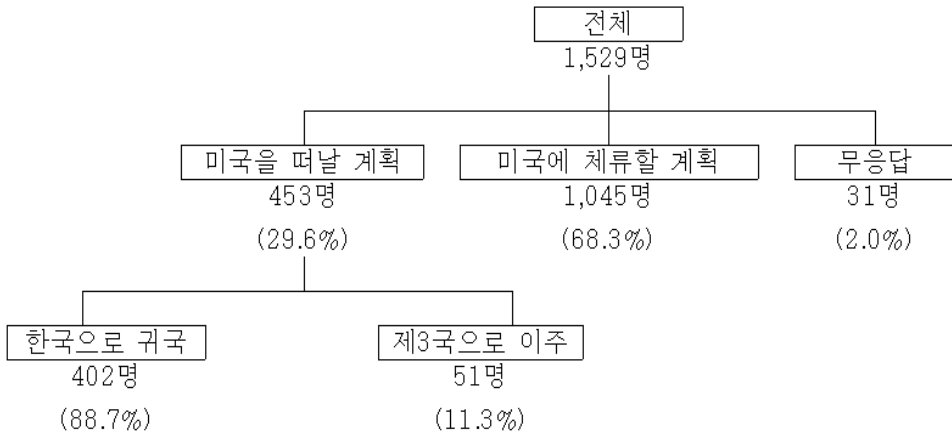


[그림 5]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취득자들의 미국 체류 계획 변화 추세(1995~2007)

- 2007년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취득자에게 졸업 당시 미국에 남을 것인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, 68.3%가 미국 체류를, 26.3%는 한국 귀국을, 3.3%는 제 3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이는 전체 미국 박사학위취득자 가운데 비미국시민권자(13,113명) 중 미국에 체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율 68.4%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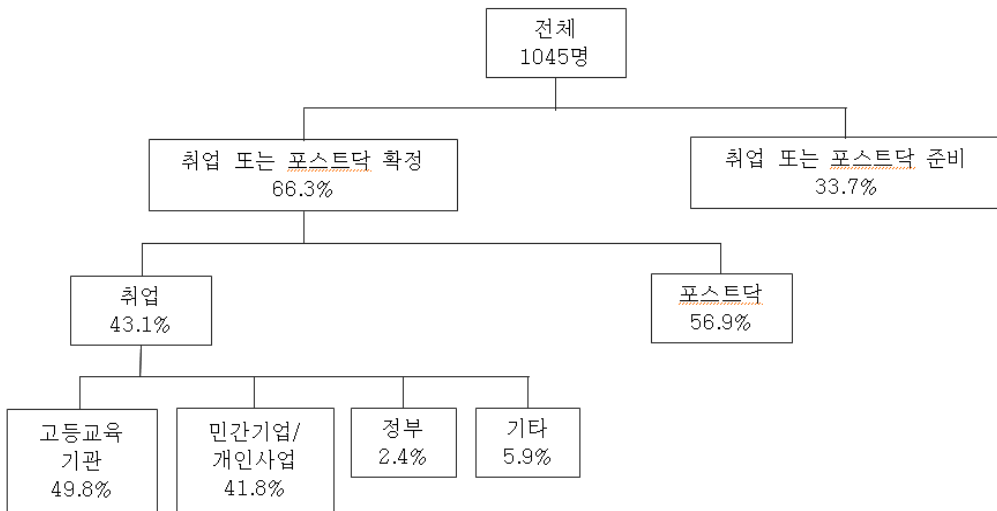
2) SED 조사는 박사학위취득 직후 실시되는 것으로(많은 대학의 경우 최종 졸업을 위한 행정 관련 서류 중의 하나로 SED 작성을 요구함), 졸업 당시의 진로 계획을 나타냄. 즉 미국 체류 의사 여부의 경우, 졸업 당시 결정 사항을 답한 것으로 영구 귀국 혹은 체류 의사를 나타낸 것은 아니며, 실제 귀국 혹은 체류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.

※ 2005년 미국박사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65.2%가 미국 체류를, 29.3%는 한국 귀국을, 3.4%는 제 3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 6]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취득자들의 미국 체류 계획(2007)

-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들의 미국 내 취업 분야로는 취업이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 49.8%가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, 그 다음으로는 민간 기업 또는 개인 사업으로 41.8%를 나타낸 반면, 정부기관에 취업이 확정된 응답자는 2.4%로 나타남.



[그림 7]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취득자 중 미국 체류자의 졸업 후 진로(2007)

-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중 취업 또는 포스트 닥이 확정된 비율은 66.3%이며 33.7%는 구직 또는 포스트 닥 준비 중에 있음.
- 전공별로 볼 때, 물리과학, 생명과학 등 이공계열의 경우 진로가 확정된 비율이 높는데 비해, 인문학, 교육학의 경우 진로가 확정된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.
- 취업 또는 포스트 닥 등 진로가 확정된 비율은 1987년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51.7%에서 2007년 66.3%로 증가하였음, 특히 사회과학, 교육학, 인문학 등 인문사회분야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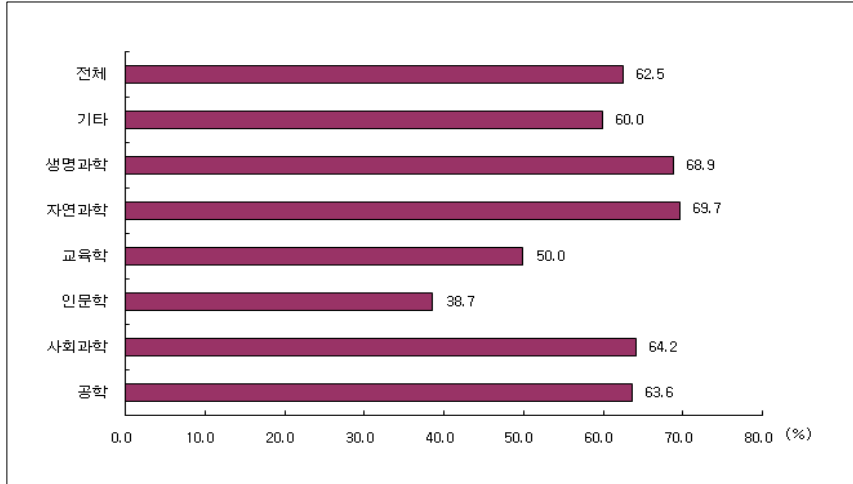
〈표 5〉 미국체류계획자의 전공별 진로확정비율의 변화 추세 (단위: %)

| 연도 | 전체 | 생명과학 | 물리과학 | 사회과학 | 공학 | 교육학 | 인문학 | 기타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1987 | 51.7 | 69.0 | 59.8 | 25.5 | 48.8 | D | D | 63.3 |
| 1992 | 57.9 | 70.6 | 58.8 | 54.7 | 49.3 | D | D | 66.1 |
| 1997 | 62.7 | 78.0 | 70.8 | 55.8 | 58.1 | 35.7 | 27.8 | 45.2 |
| 2002 | 65.2 | 68.0 | 81.2 | 68.9 | 58.4 | 41.7 | 37.9 | 67.9 |
| 2007 | 66.3 | 71.4 | 71.9 | 65.1 | 64.6 | 58.2 | 39.6 | 71.1 |

▣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 전체의 진로 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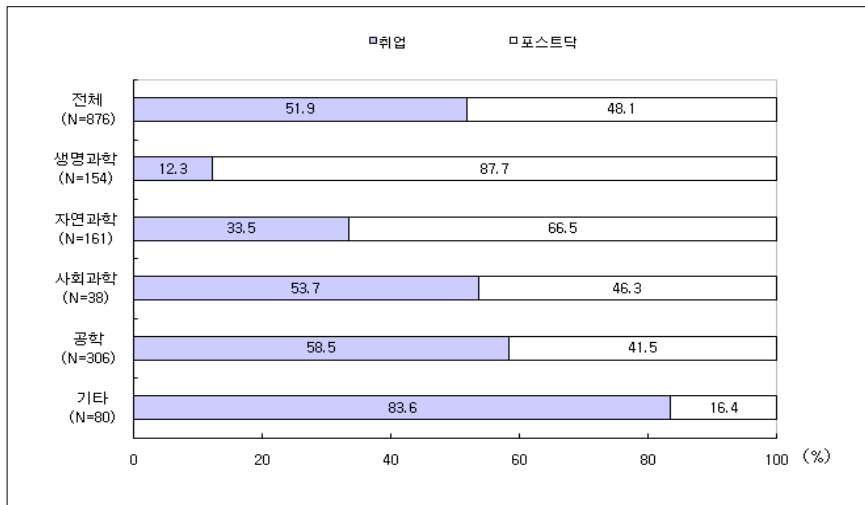
- 2007년도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의 진로 확정(취업과 포스트 닥 진출)자는 928명, 62.5%임.³⁾
- 전공 분야별로 살펴보면, 자연과학과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각각 69.7%, 68.9%, 다음으로 사회과학, 공학, 기타가 64.2%, 63.6%, 60.0% 순으로 진로가 확정되어 있음.
- 교육학과 인문학의 진로확정 비율은 50.0%, 38.7%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.

3) 한국인 총 박사학위 취득자는 1529명임. 이중 진로확정에 응답한 사람은 1485명임. 62.5%인 928명이 취업과 포스트 닥 등 진로가 확정된 사람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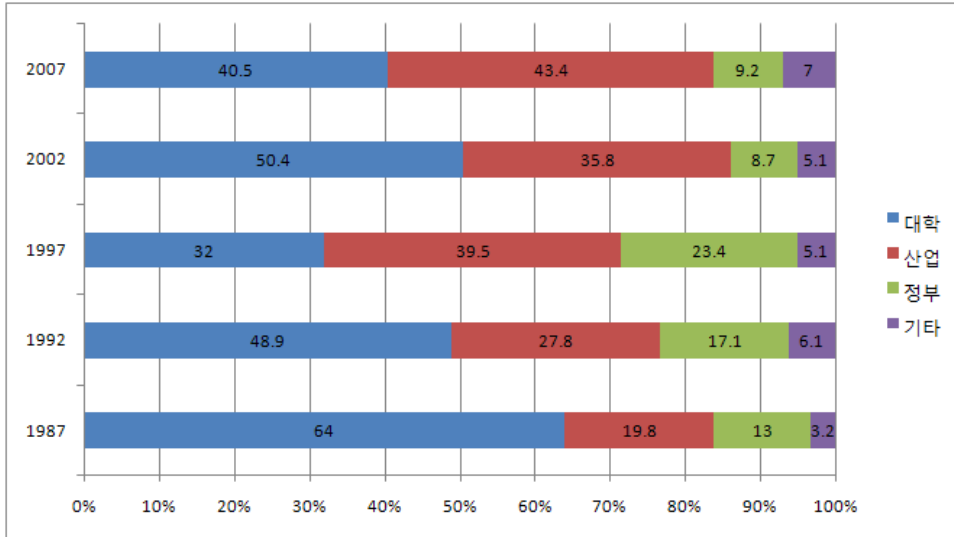
[그림 8] 전공 분야별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 및 포스트 닥 확정비율(2007년)

- 포스트 닥이 확정된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들은 전체 48.1%임.
- 전공 분야별로 살펴보면,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87.7%가 포스트 닥으로 진출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과학 분야가 66.5%의 포스트 닥 진출비율을 보임.
- 특히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한국인 미국박사들의 포스트 닥 비율이 46.3%로 2005년 26.2%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

[그림 9]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의 전공분야별 취업 vs. 포스트 닥 확정 비율(2007년)

- 지난 20년간을 비교해 볼 때, 전반적으로 대학으로의 취업 비율이 감소하고, 산업체로의 취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.



[그림 10] 한국인 미국 박사의 취업 확정 기관유형(1987~2007)

IV. 시사점

- ▣ 우리나라의 미국 박사학위취득자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, 최근에는 연간 1,500여명 정도 배출되고 있음.
-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미국 박사학위취득자 수는 다소 감소하다가 2000년도 이후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 -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한국박사는 연간 1,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이들 가운데 93%는 비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간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 있음.

- 이들 중 과학기술분야 해외박사는 약 65%를 점하고 있으며 매년 700~900명씩 배출되고 있고, 2005년 기준으로 1,000여명에 이르고 있음.
- ▣ 미국 체류 의사를 나타내는 한국인 미국 박사학위취득자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 - 한국인의 학위취득 직후 체류계획이 90년대 50%에서 2005년도에 75%로 25% 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.
 - 또한, SED와 미국 사회보장DB를 비교 분석한 자료는 학위취득이후 5년 정도 장기체류하는 한국인 박사의 비율은 1990년대 초반 학위취득자의 경우 10%에 머무르던 것이 1998년도 학위취득자는 30%를 상회함.
 - 이러한 미국 체류 증가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됨.
 - 첫째, 한국 경제의 악화(IMF 외환위기), 한국 내 박사학위 취득자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내 취업 경쟁률이 높아졌고, 이에 따라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의 한국 내 취업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져 미국에 잔류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됨.
 - 둘째, 한국 내 조기 유학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,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 남게 되는 박사가 증가함.
 - 셋째, 최근 생물과학 분야를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의 교육과정의 변화로 포스트 닥 과정이 일반화 되는 현상으로 인해, 박사학위 취득 후 포스트 닥을 위한 단기 미국 체류가 증가함(곧, 한국 귀국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옴).
 - 넷째, 미국 내 외국인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⁴⁾ 및 한국인들의 미국 내 취업 선호도 증가(의사소통 및 문화적 적응력의 증대)

4) 미국은 단기취업비자(Temporary Work VISA, H1B)의 쿼터를 2003년 이후 115,000명에서 195,000명으로 증가함.

- ▣ 한국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포스트 닥 진출 비율이 특히 자연과학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 - 포스트 닥 과정은 박사 후 진로 중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취업에 특히 필요한 과정으로, 달리 말하면 포스트 닥으로의 진출은 고등교육기관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집단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.
 - 따라서 포스트 닥 인원을 잠정적 고등교육기관 취업 인구로 가정할 경우 미국 전체 박사학위취득자에 비해 한국인 박사학위소지자의 고등교육기관 취업 희망률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.
 - 우리나라 박사학위취득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교수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과 동시에 시스템적으로 교수직 이외의 박사학위 능력에 걸맞은(한국내의) 직업·직장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.

- ▣ 박사학위취득자의 진로가 다양화 될 수 있도록 민간, 기업 및 정부 기관의 박사학위자 채용 및 창업기회 확대 등의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.

참고문헌

- 송창용 외(2007). 『미래의 직업세계(2007): 박사조사』, 한국직업능력개발원.
- 송창용 외(2008). 『미래의 직업세계(2008): 박사조사』, 한국직업능력개발원.
- 송창용(2009). 「국내박사인력의 양성과 활용 실태」. e-HRD REVIEW. 한국직업능력개발원.
- 진미석·윤형한(2003). 「고급전문인력 활용대책연구」. 교육인적자원부.
- 진미석·김나라(2004). 「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: 석·박사학위 취득자 취업실태조사」. 한국직업능력개발원.
- 진미석(2005). 「신규 입직 박사의 진로활동 실태와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: 고급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」. 『교육행정학연구』. 23(2).
- 진미석 외(2006). 『과기분야 해외박사 진로와 고급인적자원정책』. 한국직업능력개발원.
- 진미석 외(2008). 『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활용 다변화』. 한국직업능력개발원.

NSF <http://www.nsf.gov/>

SED <http://www.nsf.gov/statistics/srvydoctorates/>
